



SEAMASTER PLANET OCEAN
PYEONGCHANG 2018 EDITION

RECORDING OLYMPIC DREAMS

Since 1932, OMEGA has known that the Olympic Games is a stage for dedicated athletes to reach their dreams. That's why we love our role as Official Timekeeper and why we're so passionate about providing trusted precision in every single event.



창원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 신세계 본점 02 310 1270 • 신세계 영등포점 02 2639 1910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11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신세계 대구점 053 661 1811

Style ¹조선일보

JANUARY
2018 vol.167



Cartier

Diamond Collection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rivole collection
Between the Finger ring
white gold, diamonds.



10



12



Style **조선일보**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파리 오토 쿠티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아그리프 컬렉션 브리오울라이다. 여성용 옷의 질감(아그리프) 모티브를 응용해 제작했다. 라온드의 부드러운 핑크와 핑크의 질감인 아롬 다들이 조화를 이루며,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여성스럽고 관능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18K 화이트 골드에 총 10.50캐럿의 브리오울라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문의 1566-7277



20



08

- 10 **ENRICH YOUR LIFESTYLE** 끝없이 진화하는 기계 미학의 결정체, 자동차. '이동과 레저가 라이프스타일 키워드인 시대'이기 때문인지 남들이 불황이니 어쩌니 해도 자동차 산업은 그치지 타격을 받지 않는 영역 중 하나다. SUV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실용성과 개성, 품격의 조화를 지향하면서 소비자 마음을 공략하는 대체로운 프리미엄 자동차들의 격전이 흥미롭다.
- 12 **THE OLYMPIC OFFICIAL TIMEKEEPER** 온 국민이 기다려온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순간을 기다리는 브랜드가 있다. 바로 29번째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역할을 수행하는 오메가다. 오메가의 올림픽 타임키퍼 팀은 3백 명의 타임키퍼, 3백50 명의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30개의 공공 스코어보드, 90개의 경기용 스코어 보드를 포함한 2백30톤의 장비를 갖추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미 평창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2월 9일 경기 시작을 알리는 피스톤 건이 발사될 것이고, 오메가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 20 **BE HAPPY!** 기분 좋게 출발하는 새해, 새로운, 밝음, 희망, 그리고 스타일리스한 그대.
- 28 **ETERNAL GRACE** 주얼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위대한 보석 브랜드, 까르띠에. 변치 않는 가치를 담은 전설적인 주얼리를 통해 특별한 러브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 우아한 까르띠에의 레드 박스와 다이아몬드라면 당신도 일상에 단 하나뿐인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29 **MODERN BRILLIANCE** 단순한 반짝임을 넘어 정교함과 럭셔리,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프리미엄을 말하는 스위스 로보스키의 '이들라에 스위로브스키 라인. 세계적인 디자이너와의 협업은 물론, 브랜드 고유의 세팅 기법과 크리에이티브한 테크닉을 더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이들라에 스위로브스키 컬렉션과 배우 박신혜의 만남.
- 30 **NEW DESTINATION, NEAPOLIS** 나폴리라는 단 한 가지 단서만 가지고 마주한 나폴리 컬렉션은 보는 순간 마음 한편이 뜨거워질 정도로 강렬하고 눈부신 나폴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생동감 넘치는 나폴리의 자연과 그곳에 갖는 강렬한 햇살, 그리고 파스텔 톤을 가득 머금은 건물과 바로크 양식의 장식까지, 이런 나폴리의 따스하고 풍요로운 풍경은 루치아 피카가 창조한 사할 코스메틱에 강렬하고 우아하게 스며들었다. 사할의 아이덴티티와 나폴리의 에너지, 그리고 루치아 피카의 열정과 감각이 만나 탄생시킨 이 매력적인 컬렉션에 대해 루치아 피카와 서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32 **THE TIME IS NOW** Yesterday is Over, Tomorrow is Too Late, The Time is Now(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다름이 이야기하는 여왕 차원의 안티에이징 스킨케어는 매우 견고하고 정확하다. 꾸준한 연구를 통한 기술적인 발전 뿐 아니라 감성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불안한 감정, 조금 더 달라지고 싶은 뷰티에 대한 갈망을 고스란히 담았다. 지난 2017년 10월 도쿄에서 펼쳐진 디올 스킨케어 사이언티픽 사탕에서 만난 프리 안티에이징의 미래, 디올 캡처 유스의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한다.
- 34 **EDITOR'S PICK** 새해 피부 미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스타일 조선일보가 추천하는 뷰티 리스트를 참고하자.

Style **조선일보** Issue.167 January 2018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우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정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Elegance is an attitude

Simon Baker
 Simon Baker

LONGINES®



The Longines Master Collection

론진 부티크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EAST 02) 6905-3519 • 롯데 영등포점 02) 2164-5194
 신세계 본점 02) 310-1597 • 현대 판교점 031) 5170-2186 • AK플라자 수원점 031) 240-1123

롯데백화점 대전점 부산본점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센텀시티점 충청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 현대백화점 울산점 부산점
 롯데면세점 본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월드타워점 •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점 인천공항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 신라이파크면세점 • 갤러리아면세점 63 • 동화면세점 • 두터면세점



Jewel
SIMPLE PLEASURE

브랜드의 상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그니처 링 컬렉션.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는 다이아몬드를, 반대쪽에는 그린 컬러 제이드를 세팅한 벨리리 벨리리 링 2백만원대 **벨리리**, 리본 모티브의 표상에서 영감을 얻은 라일 새시 사용 링 가격 미정 **소세**, 직물의 주름에서 영감을 얻은 파티르 그로그렐 옐로 골드 링 2백만원대 **부세론**, 스퀘어 모양을 새긴, 브랜드를 대표하는 라일 링 2백만원대 **카르티에**, 브랜드 로고와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TOO 밴드 링 1백30만원대 **티파니**, 유채색을 세팅해 더욱 화려한 벨리리 벨리리 소세 링 3백만원대 **벨리리**, 핑크 골드 브랜드 아니셀을 유려하게 새긴 벨리리 링 3백12만원대 **벨리리 에펠**, 에디터 **베이진**

포토그래피 박인주

Book
에디터스 레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제목에서 느껴듯 이 책의 저자는 차렷했던 자신의 30대와 40대를 관통하는 기록이라고 이 책을 표현한다. 남성지 (이레나)에서 보낸 15년을 포함해 여성 패션지 (그라치아) 등에서 지난 24년 동안 밤낮없이 잡지를 만들어온, 40대 후반의 아이 엄마인 성현의 인생 성장통을 기록한 솔직한 에세이로, 저자가 남긴 수많은 기록 중 지난 11년간의 기록만 추려 엮었다. 그 이유는 가장 차렷하게 살았으며, 되돌아간다 해도 그 이상 차렷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여정이기 때문이라고. 미혼이라는 나이가 과연 시나이가 맞는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왜 꿈을 묻지 않는지, 성공을 해야 기쁘지 기쁘면 성공한 건지 등 누구나 공감할 화두를 던지는가 하면 월드컵, 초소년, 올림픽, 메르스, 포켓몬, 환남족, 촛불 등 지난 11년간 우리가 겪은 시간을 추억하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편으로 워킹 우연의 건강증이 불러온 황당한 사건, 연말 시상식 프로그램을 보다 폭발한 A급 연예인에 대한 불만, SNS가 불러온 열등감, 프라이드치킨 예전론, 결혼에 대한 정의 등 스스로서 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 역시 풍성하다. 이 책은 이 피로 사회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을 무척 무척 담담히 사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 지침서가 되어주지 않을까? 끝으로 저자는 이 모든 성찰한 기록을 이 책 제목으로 마무리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이란 이름을 걸고 달고 싶습니다. 글마다 주제가 제각각이고 글쓴이의 시간과 나이도 11년을 넘으니 어떤 제목을 내걸어도 감돌아 그저 사실에 기초해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 (중략) 글쓰기란 것이 생각을 붙잡는 일이고, 오랜 시간 쌓아온 정서 마음의 결이 얽히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의 생각들을 좀 더 단단히 옮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뤄지려 애써내고 나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가격 1만6천원(책보다) 에디터 **이재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esign
명품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창조적 만남

깊은 전통에서 비롯된 품격을 지닌 명품 브랜드와 한 사대를 풍미한 아티스트의 만남은 분야에 상관없이 언제나 관심을 이끌어내는 촉매제다. 신선한 자극이나 조화로움 아름다움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창조적 협업으로 태어난 작품성 있는 상품이 국내 시장에 소개된 눈길을 끈다. 프랑스까지 스페인의 대장사 동 페르낭은 빛의 미학을 버무리는 솜씨가 뛰어난 일본의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 요시오가 도쿠자와 손잡고 한정판 에디션 파자지를 내놓았다. 직렬하는 햇살과 무더위에서 태어난 동 페르낭 2009년 빈티지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파자지로 강렬하고 찬란한 빛의 강성을 재해석해 일렁이는 무지개빛 광채가 마치 입체 홀로그램 같은 존재감을 자아내는 밤메모양 라벨이 인상적이다. 이 한정판 에디션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백화점과 호텔에서 30만원대에 판매한다. 스위스 초현실주의 조각가 알베르 자코메티의 작품을 수놓은 광주주의 자코메티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는 (알베르 자코메티 한국특별전을 기념한 아트 컬렉티브)의 결실인 이 시리즈는 20세기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가장 자코메티의 걸작 '걸아기는 남자 (Walking Man)'와 '개(The Dog)', 고양이(The Cat)의 실루엣을 일라스트로 재해석해 그의 시간과 함께 담아낸 3종의 머그와 접시 1종, 커피잔 세트로 구성했다. 예술의전당과 광주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몰 (ekwangju.com)에서 판매하는 이 시리즈는 해외에서는 아마존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0티리아 출신의 건축가이자 디자인 구루 알레산드로 멘디의 동심 어린 감성이 스며들어 있는 디자인 브랜드 라운의 투명하고 알록달록한 색조가 돋보이는 까사 컬렉션 기획 세트도 주목할 만하다. 내구성 뛰어난 친환경 소재로 만든 식기 세트 리플레시(Refless) 3종트레이, 컵, 그릇과 양중맞은 디자인의 조명 소품 캠페넬로(Campanello)로 구성되었다. 신세계 등 유명 백화점과 공식 홈페이지(www.ramun.com), 직점점(storearm.naver.com/ramun)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에디터 **고성연**



동 페르낭



라운



광주요

Exhibition
40년 도자 인생이 담긴 신경균 개인전 <서울에 뜬 달>

백자 달항아리를 비롯해 도예가 신경균의 예술적 정수를 집약할 수 있는 개인전이 새해 초봄을 수놓는다. 지난 2014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초대전을 가지는 등 도예가로서 명성을 떨쳐온 신경균(1964년생) 작가의 개인전 <서울에 뜬 달>이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일보미술관(중대로21길 33 2층)에서 열린다. 달항아리 신작 14점, 파리 유네스코전에 전시한 26점을 함께 선보이는 자이다. 이도차원(井戸茶碗)을 재현한 도예가 장여(長如) 신경화(1930~2007) 선생의 아들로, 얼마 전의 어린 나이에 도자의 세계에 발을 들인 신경균의 작품은 여러 흙을 조합해 만든 태토(胎土)부터 직접 나무를 파고 태운 재를 사용한 유약,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발 물레질, 직접 설계한 전통 장작 가마 등 자연과 가까이 호흡하는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한다. 백자 달항아리에 집중할 이번 전시의 대표작은 각각 2017년과 2013년 제작된 '청우(靑雨)'와 '월하경인(月下佳人)'. 위아래 대칭이 정확하지 않지만 신비한 조화미를 품고 있고 좌우 선이 울퉁불퉁하면서도 매끄럽게 표현돼 있는 이 두 작품에는 '무(無)의 기교'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자연의 미학이 오히려 담겨 있다. 철학 달항아리는 단 한 점만 소지하는데, 호방한 기운이 독목 문에는 붓질로 그린 문양이 돋보인다. 입장료는 무료. 문의 02-724-7832



한 기운이 독목 문에는 붓질로 그린 문양이 돋보인다. 입장료는 무료. 문의 02-724-7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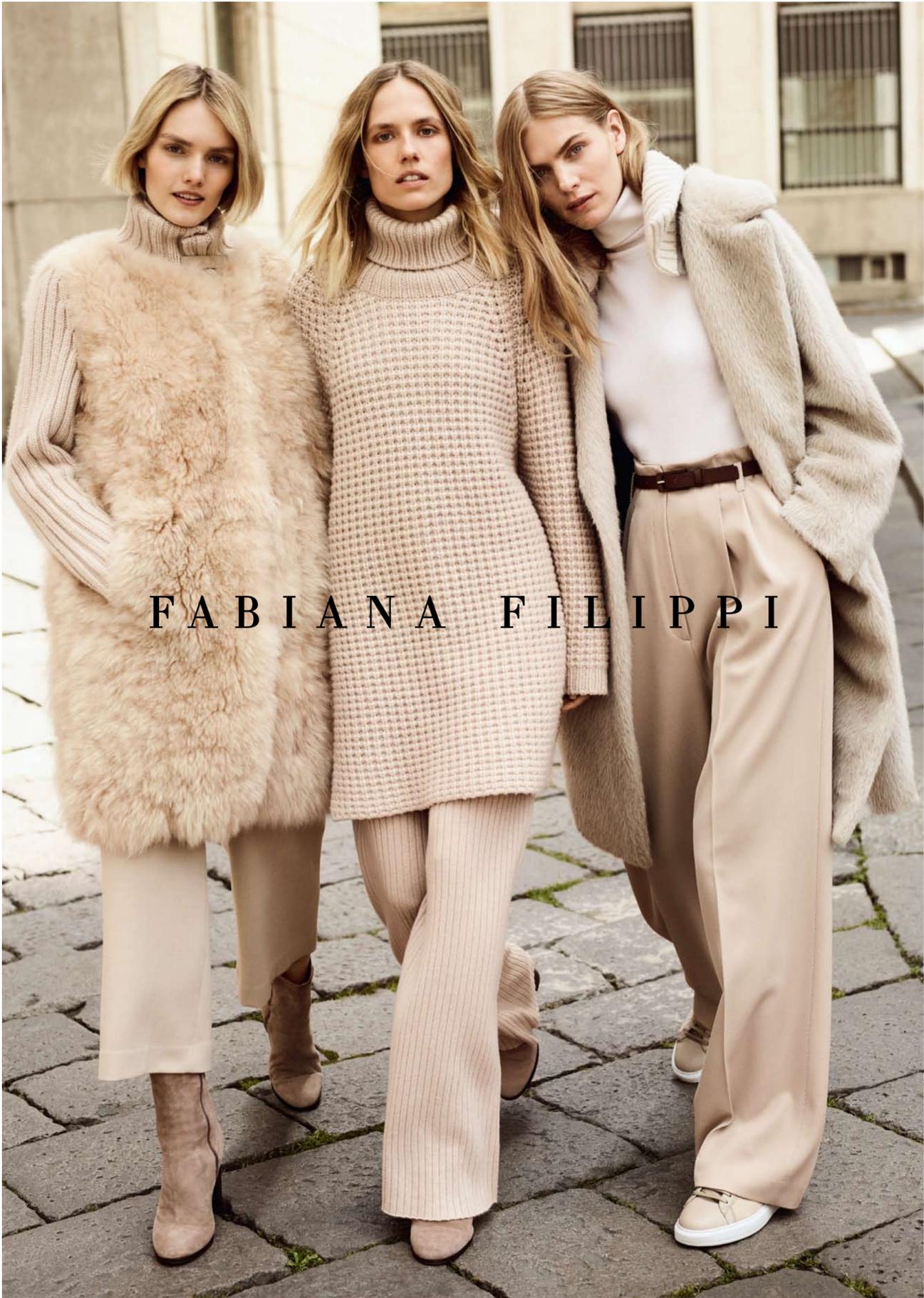
포토그래피 박인주



Beauty
LUXURIOUS MASKS

생크림처럼 아주 보드라운 크림을 얼굴에 도통하게 발라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취한 듯 말갛고 뽀얀 피부로 가꿀 수 있다. 차디찬 바람에도 윤기와 광채를 잃지 않는 피부를 위한 작은 사치, 럭셔리 마스크.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말레도보 보베 라 크림**은 고가의 가격대만큼이나 텍스처, 향, 성분, 효과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럭셔리한 경험을 선사할 페이스 크림 전용 마스크다. 일루미네이팅 콤플렉스D가 세포 스트레스를 차단해 피부를 빛나게 하고, 시호 추출물이 피부를 촉촉하게 해 탄력 있는 피부를 완성한다. 편식에는 데일리 크림으로 사용하고 좀 더 집중적인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밤에는 도통하게 발라 수면 때 대신 사용하면 좋다(30ml 68만원대). **'샤넬 수블리미지 마스크'**는 피부 재생과 영양 공급에 탁월한 효과를 겸비해 이 마스크 하나만으로도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하다. 피부를 위한 모든 생령 인자에 적용해 피부를 재건하고 피부 세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일주일당 1~3회 정도 자기 전, 내장된 탄력 있고 부드러운 브러시를 활용해 얼굴에 펴 바른 다음 10분 뒤 티슈로 닦아내면 피부의 촉촉함과 편안함이 다음 날까지 유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50ml 26만원대). **'아모레퍼미넌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슬리핑 마스크'**는 무려 34년의 기술을 이겨낸 34년 된 녹차, 무 뿌리의 고구마와 강력한 생명을 담은 성분은 함유해 밤사이 맑고 탄력 있는 피부 재생과 가꾸주는 안티에이징 슬리핑 마스크다. 녹차 뿌리에 다량 함유된 풍부한 사포닌과 항화 작용을 하는 GABA 성분이 딥 텍스처를 도와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칙칙한 톤을 맑게 개선한다(50ml 22만원). **'프래쉬 블랙티 피닝 오버나이트 마스크'**는 일명 '코르셋 마스크'라는 애칭이 있는 나이트 마스크로, 밤 동안 코르셋처럼 피부를 쫄려주고 탄력 있게 조여준다. 피부 탄력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블랙티 콤플렉스 성분과 밤에 피는 꽃으로 알려진 분꽃 성분을 함유해 호르몬 피부 밸런스를 빠르게 회복시킨다. 마스크 효과를 보려면 7시간 동안 수면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최소 100분 14시간이면, **'컬러링 골드 오이드 마스크'**는 이미 두꺼운 마.이층을 확보한 럭셔리 수면 마스크로, 잠에 서도 고급 스파 케어를 받은 듯한 효과를 선사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피부에 활력을 주는 골드 오이드 테라놀로지를 결합한 새로운 포물라에 공 단백질 추출물과 망고 시드 버터를 더해 더욱 빠르고 집중적인 효과를 선사한다. 기분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풍부하고 크리미한 텍스처로, 10분만 팩을 하는 동안에도 영미! 등락 흡수되고 있음을 직접 느낄 수 있다(75ml 49만원대). 에디터 **김유진**



FABIANA FILIPPI

fabianafilippi.com



Selection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나를 위한 나의 새해 첫 선물.
New year, New you!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시어링 울린 데리얼의 그레이 캐시미어 재킷 480,000원인데 에르메스에도 재나.

BRIDES-GALA
HERMES
PARIS
2015년 1월 1일 발매

실로 스카프 디자인이 다채로운 울린 모피 스카프. 1백만원대 이하.

2015년 황금 개미 레플리카 맞아 선보이는 캐시미어인 캡슐 컬렉션 클라치. 15x24.5cm, 1백만원대 보태가 배너다.

블랙 울린의 비오는 그레이 이은 세 번째 울린 스카프로 선보이는 레이카 X 슈타이브 라인업의 레이카.

코스모폴리탄이 포인팅의 베이지니트 바니 69만원정원 퍼비어나 팔린지

이런 저런 유망 상품에 매혹된 나는 상하이 가을 라인도 라벨로만 알 2백만원대 이하.

견고한 우드 프레임 선글라스 2백50만원 까르피에.

스타일링은 유망 상품에 매혹된 나는 상하이 가을 라인도 라벨로만 알 2백만원대 이하.

모쉬 피츠 프린트 숏이치 족 프린팅 슬립은 1백10만원 다음 울모.

스텔링 실버 하트 태그가 달린 티파니 X 슈타이브 라인업 티파니 라틴 태드 캐퍼 500만원대 티파니.

80%족 스카프 100% 울린 울린 스카프 70만원대 퍼비어나 팔린지

다이에 패턴 비공에 바스티 패치를 다한 캐시미어 실로 울린 어플러 1백50만원 루이 비롱.

비블스 멤버들의 실용성을 포인팅한 그레이 캐시미어 비블스 에디션 950만원 퍼플 가죽 카버노트 700만원 모두 몽블랑.

파스텔 블루 컬러에 진주 장식을 더해 로맨틱한 무드를 선사하는 캔디백, 19x16cm, 2백85만원 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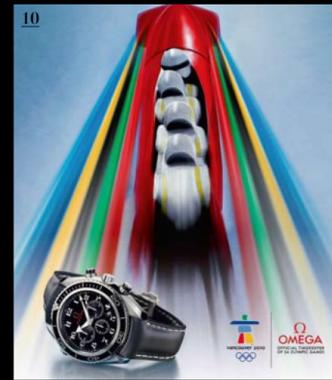
온타리 록 어딘가에 나일 아올라는 울린 컬러 패딩 백백, 33x43.5cm, 1백19만원 몽블랑.

- 몽블랑 1670-4810
- 에르메스 02-542-6622
- 까르피에 1566-7277
- 퍼비어나 팔린지 02-6905-3626
- 다음 울모 02-3480-0104
- 산버틀레 데라기모 02-3430-7854
- 에르메스에도 재나 02-3479-6297
- 루이 비롱 02-3432-1854
- 캔디 02-2056-9023
- 몽블랑 02-514-0900
- 막스미라 02-3467-8326
- 타사키 02-3461-5558
- 티파니 02-547-9488
- 라이카 1661-0405
- 보태가 배너타 02-3438-7601

막스미라 하우스의 시그니처 아이템, 퓨어 캐주얼 헤어 소재의 캐주얼 컬러 코트 3백44만원 막스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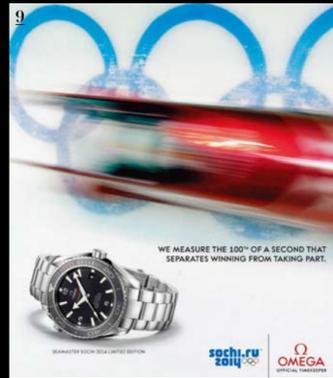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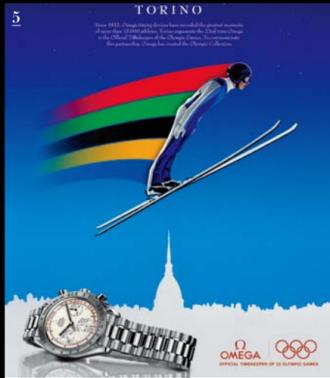


GAROSUGIL BAGSTAGE 02 3444 0914
DOSAN FLAGSHIP STORE 02 2056 0914



The Olympic official timekeeper

온 국민이 기다려온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순간을 기다리는 브랜드가 있다. 바로 28번째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역할을 수행하는 오메가다. 오메가의 올림픽 타임키퍼 팀은 3백 명의 타임키퍼, 3백50명의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30개의 공공 스코어 보드, 90개의 경기용 스코어 보드를 포함한 2백30톤의 장비를 갖추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미 평창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2월 9일 경기 시작을 알리는 피스톤 건이 발사될 것이고, 오메가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올림픽의 역사, 오메가의 역사가 한국에서 다시금 쓰여지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과 함께하는 오메가의 28번째 스토리

오메가가 오랜 시간 동안 올림픽 타임키퍼로 활동했다는 것은 세계 전문가 혹은 마니아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다. 지금은 시계가 소장 가치로서, 디자인으로서, 완성도로서 다양하게 평가되지만 최초의 시계 기능을 떠올려보면 정직한 한 시간 계측기로서의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 게 올바른 것이다. 이러한 시간 측정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분야이며 이 스포츠의 꽃은 곧 올림픽이며 기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갖춘 시계 브랜드가 오메가다. 이러한 오메가의 거대한 이벤트,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축제를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으로 평창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진화된 디지털 기록계의 개발로 도약하는 오메가 타임키퍼

올림픽 타임키퍼가 된다는 것은 시계 브랜드에 어떤 의미일까?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각기 다른 기술적 개발과 특별한 장비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기에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가 된다는 것은 그에 걸맞은 워치메이킹 기술이 뒷받침된다는 이야기다. 오늘날과 다른 브랜드에 그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도 이를 구현할 기술을 갖춘 브랜드는 거의 찾기 어려울 것이다. 1932년 이래로 개최된 대부분의 올림픽 경기에서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해온 오메가는 1930년대 크로노그래프 스톱워치에서 세계 최고의 최첨단 데이터 처리 및 타임키퍼 기술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타임키퍼의 역사 그 자체이다. 스티트 라인에서 스코어 보드까지 모든 계측 장비에서 오메가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양한 경기종목에 알맞은 기술을 개발해 올림픽 역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영 경기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많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중에는 수영 경기를 위한 최초의 반자동 타이머를 비롯해 수영장 레인아웃 끝에 지리한 그 유명한 터치패드도 포함되어 있다. 육상경기에서도 오메가는 정확한 기록 측정을 요구하는 스포츠 타이밍에 사용하는 기기를 연구·개발·생산해왔다. 플래시 전자 스타팅 건(flash electronic starting gun), 통합 스타팅 블록(starting blocks), 부정 출발 감지 시스템을 비롯해 1초에 1만 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포토 파우시 카메라 스캔오비전 미라(ScanO'Vision MYRIA,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데뷔했다) 등이 그 예다. 올해는 봅슬레이 경기에서 봅슬레이 장비에 속도는 물론 시간, 각도까지 모두 측정하는 장비를 부착함으로써 스포츠 경기 기록 자체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 차원 높은 역할을 수행한다. 오메가는 신체 능력 향상으로 더욱 빠르고 강력해지는 선수들, 그리고 좀 더 정교하고 까다로운 측정을 원하는 올림픽 주최 측의 기준을 넘어 발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록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할 때 이러한 오메가의 타임키퍼들이 세심하게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2018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올림픽과 오메가의 만남, 그리고 올림픽의 매 순간을 기록하는 브랜드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역시 굉장한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오메가 마니아라면 경기장 곳곳에 위치한 오메가의 로고를 찾아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타임키퍼인 오메가는 1932년부터 쌓아온 국제경기와 올림픽 기록 측정에 관련한 1백년 가까운 역사를 유감없이 드러낼 예정이다.

1 올림픽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계측 장비에서 오메가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다. 2, 11, 14 1/1000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사인 속 장비는 스피드스케이팅을 위한 포토 셀 장치다. 3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오메가의 타임키퍼들은 벌써 평창에 도착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4 스피드스케이팅 클라시 오션 '평창 2018' 라미티드 에디션. 5 2006년 토리노 올림픽을 위한 오메가 포스터. 6 평창 올림픽 D-100 이벤트를 개최된 오메가의 갈라대. 7 오메가가 올림픽을 위해 개발한 플래시 전자 스타팅 건(flash electronic starting gun), 올림픽 경기 역사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장치다. 8 올해 오메가가 개발한 특별한 장비를 부착하고 첫 번째 경기를 펼치는 봅슬레이 종목, 오메가는 새로운 기록 장비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9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위한 오메가 포스터. 10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위한 오메가 포스터. 12 부정 출발 감지 시스템을 비롯해 1초에 1만 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포토 파우시 카메라. 13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아 테라 '평창 2018' 라미티드 에디션.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
“평창 2018” 리미티드 에디션
 (왼쪽) 태극기를 상징하는 선명한 블루와 레드 컬러가 평창 올림픽 에디션으로 확고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 평창 2018 에디션. 케이스 밖에서 이 제품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리미티드 에디션 넘버와 함께 'PLANET OCEAN LIMITED EDITION' 문구가 파란색 글자로 각인되어 있다.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 백에는 'PyeongChang 2018'과 동계올림픽 로고를 새겨 더욱 의미 깊다. 역시 2천18개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시마스터 아쿠아 테라
“평창 2018” 리미티드 에디션
 (오른쪽) 이번 올림픽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아쿠아 테라 150M 컬렉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오메가의 다섯 가지 아이코닉한 컬러를 사용해 'PYEONGCHANG 2018'이라는 글씨를 아쿠아 테라의 대표적인 블루 PVD 다이얼 위 마네프렉에 새겨 넣었다는 점이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에도 공식 명칭인 'Olympic Games PyeongChang 2018' 로고가 새겨져 있다. 오메가를 상징하는 마스터 코-역시업 무브먼트 8500을 장착해 더욱 매력적이다. 2천18개 한정판으로 출시해 특별한 패키지와 함께 구성했다.

동계올림픽 중계를 우상히 본 이라면 스피드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경기의 마지막 바퀴(final lap)를 돌 때 들리는 큰 종소리를 기억할 것이다. 사진 속 금빛 종이 바로 그 소리를 내는 라스트 랩 벨(last lap bell)이다. 완벽한 속정을 위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오메가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올림픽에서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종(라스트 랩 벨)을 이번 오메가의 (올림픽 전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라스트 랩 벨은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된 청동으로 제작한다. 최첨단과 전통을 함께 지향하는 오메가의 철학을 투영한 것이다.



The Evolution of Time

올림픽 때마다 개최를 기념하는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여온 오메가. 올해 역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에디션을 선보인다. 리미티드 에디션부터 빈티지 컬렉션의 소장 가치를 지닌 올림픽 타임키퍼 컬렉션, 그리고 항상 빛을 잃지 않는 오메가의 스테디셀러 제품까지. 이 모든 제품은 청담동 오메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2018년 2월 9일에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는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2월 말까지 올림픽 관련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된 스키 부츠의 뒷부분에 장착한 레드 컬러 장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교식을 치르는 스키 부츠 모션 센서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먼저 만나 볼 수 있다.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컬렉션
 오직 1백88미스만 한정 제작하는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컬렉션. 오랫동안 올림픽 타임키퍼로 활동한 오메가의 가치를 드러내듯, 빈티지한 디자인이다. 시계의 케이스 밖에는 올림픽 대회를 상징하는 5개의 동그라미와 'Official Timekeeper of the Olympic Games(올림픽 경기 공식 타임키퍼)' 라는 문구와 함께 리미티드 에디션 번호가 새겨져 있다. 화이트 레커 다이얼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며, 블루 스틸 핸즈와 우아한 플렉이 느껴지는 크로노그래프가 눈에 띈다. 기계에 빈티지 스타일의 레드 컬러 오메가 로고로 빈티지 매력을 더해 소장 가치가 높다.

스피드마스터 레이싱마스터 크로노미터

스틸 브레이슬릿과 레더 스트랩, 두 가지 버전의 스피드마스터 레이싱 마스터 크로노미터. 오리지널 모델의 유산과 디자인 요소를 계승하는 모든 스피드마스터 타임피스와 마찬가지로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레이싱 다이얼은 1968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 시도한 각자무늬 형태의 마넛 트랙과 함께 슈퍼 루미노바로 채운 베젤 가공 화살촉 인덱스, 2개의 라지 사이즈 서브 다이얼을 배치해 스피드마스터와 모터 레이싱 분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드러낸다.



스피드마스터 38 오르비스 컬렉션

오메가는 2011년 이후 세계 각지에 수준 높은 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르비스 인터내셔널(Orbis International)과 플라잉 아이 호스피탈(Flying Eye Hospital)을 후원해오고 있는데, 이를 기념하는 에디션이다. 가로 형태의 라이트 블루 타일형 서브 다이얼과 6시 방향에 위치한 세로 형태의 타일형 날짜창이 유니크하다. 오메가는 이 시계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오르비스 인터내셔널 후원에 사용한다. 맥 케이스에서는 오르비스를 상징하는 테두리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11-5797



2017년 11월 초부터 시작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전시는 오메가 창당 부티크에서 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오메가가 1932년부터 함께한 올림픽 게임 관련 유산과 오랜 스포츠 시간 계속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봅슬레이부터 경기 시작을 알리는 스타팅 피스톨(starting pistol), 알파인 스키 게이트(alpine ski gate), 라스트 랩 벨(last lap bell)등 오메가 타임키퍼 장비까지 볼 수 있다.





1 시청광장에 세운 오메가 카운트다운 클락, 2 오메가 평창 동계올림픽 D-100 갈라 디너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김연아, 수많은 셀러브리티들이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3 2018년 2월 말까지 오메가 창당 부티크에서 열리는 <올림픽 전시회>



Companion for Olympics, Omega

서울시청 광장에 세운 오메가의 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 시계탑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희망의 카운트다운이 된 지 1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세계적인 축제를 만끽하는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싶다면 오메가 창당 부티크에서 열리는 <올림픽 전시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평창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 게다가 동계 대회는 처음이다. 평창 올림픽은 지난 2011년 남아공 더반 IOC 총회에서 유치가 확정된 뒤 숨가쁘게 6년을 달려왔다. 3주 끝에 대회 위치를 확정된 만큼 성공 개최를 향한 뜨거운 의지와 열정으로 대회를 준비해왔다.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뒤돌아보는 동시에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행사는 2017년 2월 8일 수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IOC 조정위원장 구닐라 린드버그와 이회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리고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오메가의 대표이자 CEO 레이날드 애슬리만, 그리고 서울시민과 강원도민이 함께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딱 1년 앞둔 시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 시계탑(오메가 타임키퍼) 제막식을 위한 행사였다. 무게 8톤, 높이 4.3m의 올림픽 카운트다운 시계탑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가 끝나는 2018년 3월 20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자리할 예정이다. 오메가의 대표이자 CEO 레이날드 애슬리만은 “오메가는 이번에 28번째 공식 타임키퍼로 참여한다. 최고의 경기를 위해 피땀 흘려 연습하는 선수들을 위해 타임키퍼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오메가의 사명”이라며 오메가의 오랜 타임키퍼 역사에 자부심을 보였다. IOC 조정위원장 구닐라 린드버그는 “그간 타임키퍼 기술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빠르게 발전해왔다”며 오메가가 운동경기 기록만 전담하는 오메가 타이밍이라는 계열사를 둘 정도로 초정밀 측정에 대한 연구를 아끼지 않은 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오메가가 공식 올림픽 게임 타임키퍼로서 2032년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932년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이후 이번 계약으로 자그마치 1백 년 인연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그랬듯 오메가는 평창에서도 새로운 타임키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어떤 신기술을 스포츠에 접목했는지, 오메가의 활약 또한 이번 올림픽 관련 포인트 중 하나다.

오메가 창당 부티크에서 만나보는 <올림픽 전시회>

모두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가운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1백 일 전인 2017년 11월 1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웨스턴 조선 호텔 서울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D-100 오메가 갈라 디너 행사'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갈라 디너 행사에는 피겨 퀸 김연아를 비롯해 배우 정우성, 이정재, 장미희, 김신아, 모델 장윤주, 이현이, 가수 선과 배우 정혜영 부부,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리듬체조 선수 출신 신수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를 주최한 오메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개의 독창적인 타임퍼스를 제작했다. 태극기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링이 돋보이는 ‘짜마스터 플래닛 오션 ‘평창 2018’ 리미티드 에디션과 ‘짜마스터 아쿠아 테라 ‘평창 2018’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그리고 더 큰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바로 2018년 2월 말까지 오메가 창당 부티크에서 열리는 <올림픽 전시회>다. 전시장에 들어서서 맨 처음 마주하는 타임키퍼는 ‘스타팅 피스톨’이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부터 사용한 타임키퍼로, 출발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한다. 심판이 방아쇠를 당기면 소리가 울리고 조명이 나오며 진동이 전달된다. ‘알파인 스키 게이트라’ 불리는 타임키퍼도 볼 수 있다. 스키 선수들의 스타트를 체크하는 장치로, 모든 선수가 같은 각도에 있을 때 출발 신호를 올리도록 돕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고식을 치르는 ‘스키 부츠 모션 센서’는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이 장치는 착용한 선수의 실시간 경기 데이터를 타임키퍼에 전송해 점프 각도, 체중 시간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실제 사이즈의 봅슬레이 장비를 전시해 동계올림픽을 보다 가깝게 체험할 수 있다. 또 올림픽 기념 스페셜 에디션인 오메가 스텝워치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에디션까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는 오메가 창당 부티크에서 2018년 2월 말까지 계속되고, 방문 시 예약은 필수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동계올림픽의 숨은 최첨단 기술과 감동적인 축제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길 권한다. 문의 02-511-5797 에디터 배미연

Ω OMEGA

Olympic Timekeeping Highlight

1936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위해 29세의 오메가 워치 메이커 폴-루이 기냐르(Paul-Louis Guignard)는 여행 가방에 1백85개의 크로노그래프를 직접 담아 비엘(Blie)에서 베를린으로 향했다. 이 역사적인 올림픽에서 미국의 제시 오웬스(Jesse Owens)가 금메달 4관왕을 차지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육상 선수들이 자신의 출발대를 만들기 위해 작은 삼을 가지고 직접 땅을 팠다는 사실.

1932

1932년 스포츠 기록 측정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해다. 오메가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공식 타임키퍼가 되었고, 뇌사텔 천문대(Observatory at Neuchâtel)에서 정밀한 크로노미터로 인증받은 30개의 정밀 크로노그래프를 스포츠 기록 측정을 위해 제공했다. 올림픽 조직 위원회가 오메가 시계를 선택한 것은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오메가 시계의 정확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공식 기록은 1/5초, 1/10초 단위까지 기록됐다.

1948

1948년은 오메가 광전자를 올림픽에서 처음 사용한 해다. 이 혁신적인 기술력은 인간의 눈을 대체했고,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해 생모리츠(Sl. Moritz)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결승선에 위치한 이 장비가 광선을 발사했다. 첫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자 타이머는 즉시 멈추었고, 1/1000초 단위까지 정확한 결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1948

1948년은 오메가 광전자를 올림픽에서 처음 사용한 해다. 이 혁신적인 기술력은 인간의 눈을 대체했고,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해 생모리츠(Sl. Moritz)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결승선에 위치한 이 장비가 광선을 발사했다. 첫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자 타이머는 즉시 멈추었고, 1/1000초 단위까지 정확한 결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1964

1964년 오메가는 처음으로 올림픽 경기 기록을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했다. 이는 오메가스코프(Omegascope)라는 이름의 신기술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전에는 경기장 바깥에 있는 관중이 현재 진행되는 경기에 대해 그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인스브루크(Innsbruck) 올림픽부터 스포츠 중계에 ‘실시간(real-time)’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1956

1956년 오메가가 올림픽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처음으로 스타팅 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한 해다. 코르티나 دام페초(Cortina d'Ampezzo)에서 첫선을 보인 스타팅 게이트는 경기 시작을 알려주었다. 선수들이 통과하지 마자 오메가 퀴츠 레코더(OMEGA quartz recorder)가 작동을 시작했다.

1964

1964년 오메가는 처음으로 올림픽 경기 기록을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했다. 이는 오메가스코프(Omegascope)라는 이름의 신기술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전에는 경기장 바깥에 있는 관중이 현재 진행되는 경기에 대해 그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인스브루크(Innsbruck) 올림픽부터 스포츠 중계에 ‘실시간(real-time)’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1968

1968년은 오메가가 올림픽에서 통합 타임(Integrated timing)을 처음 적용한 해다. 그르노블(Grenoble)에서 열린 경기에서 오메가는 기자, 미디어, TV 채널, 심판, 대중에게 선수의 기록에 대한 추가 정보를 비롯해 심도 깊은 통계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또 한 차례 진보한 오메가스코프가 등장해 선수 이름, 실시간 기록, 최종 기록, 중간 기록, 속도 등 다양한 자세한 정보를 TV 스크린에 보여주었다.

2006

2006년, 오메가는 특별한 무선 장치인 트랜스폰더(transponders)를 처음 소개했다. 투린(Turin)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사용한 트랜스폰더는 선수들의 발목에 장착했는데, 무선 신호를 수신해 오메가 기록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992

1992년 오메가는 앨버트빌(Albertville)에서 새로운 스캔-오-비전(Omega scan-o-vision)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전 올림픽 경기에서도 오메가는 포토 파시 카메라를 사용했지만, 이 최신 기술 덕분에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을 1/1000초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었다. 정확도가 높기로 명문으로 개선했던 타임키퍼와 과학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1980

1980년은 오메가가 처음으로 게임-오-매틱(Omega game-o-matic)을 소개한 해다. 이 시스템은 알파인 스키 경기에서 선수들이 결승선을 지나는 순간 순위까지 동시에 보여주었다. 게임-오-매틱은 자체 데이터 처리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그해 레이크 플라시드(Lake Placid)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모든 기계를 총괄시켰다.

2010

2010년 밴쿠버(Vancouver) 동계올림픽에서는 새로운 전자 스타팅 피스톨(electronic start pistol)을 사용했다. 전통적인 총 대신 오메가는 플래시 건(flash gun)과 음향 생성 박스(sound generation box)로 구성된 심플하면서도 미래적인 장비를 소개했다. 출발을 알리는 심판이 방아쇠를 당기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소리가 울리고, 조명이 작동하며, 출발 신호 진동이 타임키퍼 장비에 전달되는 것이다.

2014

2014년 소치(Sochi) 동계올림픽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기술이 첫선을 보였다. 오메가는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휘슬 감지 시스템(whistle detection system)을 소개했다. 심판들이 이를 착용했는데, 시스템의 마이크를 통해 타이밍 벤치에 있는 공식 기록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심판의 휘슬 소리를 감지하지 마자 1/10초 이내에 경기를 중단시켰다. 덕분에 수동으로 시간을 멈추는 것보다 최소 0.5초 더 빨리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2018

2017년 5월 오메가는 스위스 로잔에서 공식 올림픽 게임 타임키퍼로서 2032년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림픽 선수들은 오메가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2032년은 오메가가 올림픽 타임키퍼로서 보낸 1백 년을 기록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그동안 올림픽에서 그랬듯 오메가는 평창에서도 새로운 타임키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레드 드레스, 블랙 벨트,
블랙 초커 모두 가격 미정
다음, 레드 핑프스 가격 미정
스튜디오 와이즈엔.

Be Happy!

기분 좋게 출발하는 새해. 새로움, 밝음, 희망,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그대. *photographed by park ja wook*

(왼쪽부터) 체크 재킷 2백78만원,
화이트 셔츠 38만원, 팬츠 가격 미정
모두 **까날리**, 플라워 패턴 시스루 드레스,
슬립 뷔스티에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몰체언가버나, 삼자카 모티브 주얼 장식
이어링 38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블랙 레터링 재킷, 화이트 자수 셔츠
모두 가격 미정 **몰체언가버나**.

몽

베이지 플라워 패턴 재킷 3백99만원,
 플레어 스커트 1백86만원, 진주 장식
 스트랩 힐 1백32만원 모두 핏다.
 터틀넥 슬리브리스 톱 90만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크리스탈 장식
 실버 드롭 이어링 9만8천원 남바람,
 실버 드롭 이어링 6만2천원 영주.



(왼쪽부터) 레더 재킷, 블랙
 사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모스카노**,
 블랙 사이하이 부츠 1백78만원 **류샤메**
자노타, 실버 주얼 장식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반디자클라우드**, 블루 패턴
 재킷, 블랙 패턴 셔츠, 애장본 맨즈,
 스타드 장식 벨트, 블랙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왼쪽부터) 블랙 벨벳 톱, 레오파드 패턴 스카트 모두 가격 미정 이지벨이랑, 골드 드롭 이어링 6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골드 스트랩 넥크리스 가격 미정 프리다, 퍼장식 재킷 가격 미정, 니트 톱 87만원, 블루 셔츠 79만원 모두 구피, 레더 재킷, 그레이 스웨트셔츠, 화이트 셔츠, 패턴 스카트 모두 가격 미정 발렌티노.

태양문드 재킷 가격 미정 다케시마어, 스트라이프 톱, 베이지 플레어 스카트, 시스루 스타킹, 블랙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타, 진주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구피, 링 33만원 모두 타니 by 미네타니, 플라워 패턴 토트백 가격 미정 볼체만가바나.





(왼쪽부터) 베이지 자수 패턴 재킷과 스커트, 그린 니트 카디건, 블랙 삭스 힐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진주 드롭 이어링 20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그린 체크 셔츠 10만원 **브룩스브라더스**, 데이비 재킷과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브리오니**, 켈시 부츠 가격 미정 **오다나리 피플**.

블랙 플리워 패턴 재킷 2백90만원, 스트라이프 셔츠 1백60만원, 화이트 팬츠 1백90만원 모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시파이어 장식 이어링 18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헤어 **김승원**
메이크업 **최사노**
모델 **타야나, 다니엘 오, 니카타(NYG K PLUS)**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팬티 02-2056-9023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남버링 070-7561-6794
일주 02-3446-3069
까날리 02-772-3599
타니 by 미네타니 02-6905-3583
올채환석/타나 02-6905-3971
모스카노 02-3213-2323
쥬세페 자노티 02-543-1937
빈티지 할리우드 02-6224-2203
프라다 02-3218-5331
루이 비통 02-3432-1854
브룩스브라더스 02-2052-8824
오다나리 피플 070-4411-2938
브리오니 02-3274-6483
스튜디오 와이로면 02-6905-3991
이치켄미랑 02-516-3737
구찌 1577-1921
발렌티노 02-2015-4653
다카시미어 02-3416-4397
보티가 베네타 02-3438-7601
더울 02-3480-0104

eternal Grace

주얼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위대한 보석 브랜드, 까르띠에. 변치 않는 가치를 담은 전설적인 주얼리를 통해 특별한 러브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 우아한 까르띠에의 레드 박스와 다이아몬드라면 당신도 일생에 단 하나뿐인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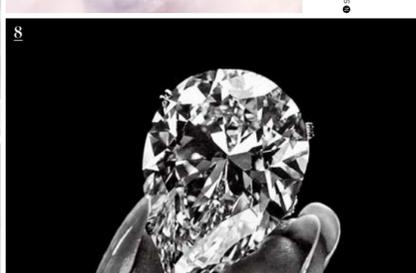
영원한 사랑의 상징,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1캐럿을 얻으려면, 평균 2백50톤의 자갈과 바위를 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런 희소성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채취한 다이아몬드의 양은 겨우 5백여 톤에 불과하고, 그중 보석으로 쓰이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처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거나 마모되지 않고 영롱하게 빛나는 특성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늘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지표로 쓰인다. 1847년 파리 보석 아틀리에로 시작해 '보석상의 왕'으로 불리는 까르띠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희귀한 보석인 다이아몬드 중 가장 아름다운 것만 수집해 가장 매력적으로 세팅해 내놓는 브랜드다. 그 결과 까르띠에 다이아몬드는 수많은 매혹적인 러브 스토리의 핵심 소재로 자리했다. 1956년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는 모니코 왕 레니에 3세에게 약혼반지로 10.47캐럿의 까르띠에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링을 선물 받았다. 그레이스 켈리는 자신의 마지막 영화 <상류사회(High Society)>에 이반 지를 끼고 출연할 정도로 남다른 애착을 가졌다. 1969년 모니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의 40번째 생일 파티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무려 69.42캐럿의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다. 사실이 다이아몬드는 까르띠에가 경매를 통해 1백5만달러에 구입한 것인데, 배우 리처드 버튼이 그 진귀한 보석을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선물하고 싶어 까르띠에에 재판매를 요청해, 1백10만달러에 판매했다. 까르띠에는 당초 반지로 제작한 제품을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요청에 따라 목걸이 펜던트로 만들어줬다. 이 다이아몬드는 지금도 '버튼-테일러 다이아몬드'라 불리며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을 상징한다. 2011년 4월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결혼식 때 신부 케이트 미들턴이 착용한 티아라 '헤일로(Halo)' 역시 까르띠에 제품이다. 이 티아라는 1936년 요크 공작이 국왕(조지 6세)으로 즉위하기 몇 주 전 부인 엘리자베스 왕비를 위해 구입한 것이다. 이후 엘리자베스 여왕이 물려받았고, 영국 왕실에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랑의 징표를 케이트 미들턴이 빌려 착용한 것으로, 시대와 세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기쁨과 아름다움이 한데 어우러진 까르띠에의 가치를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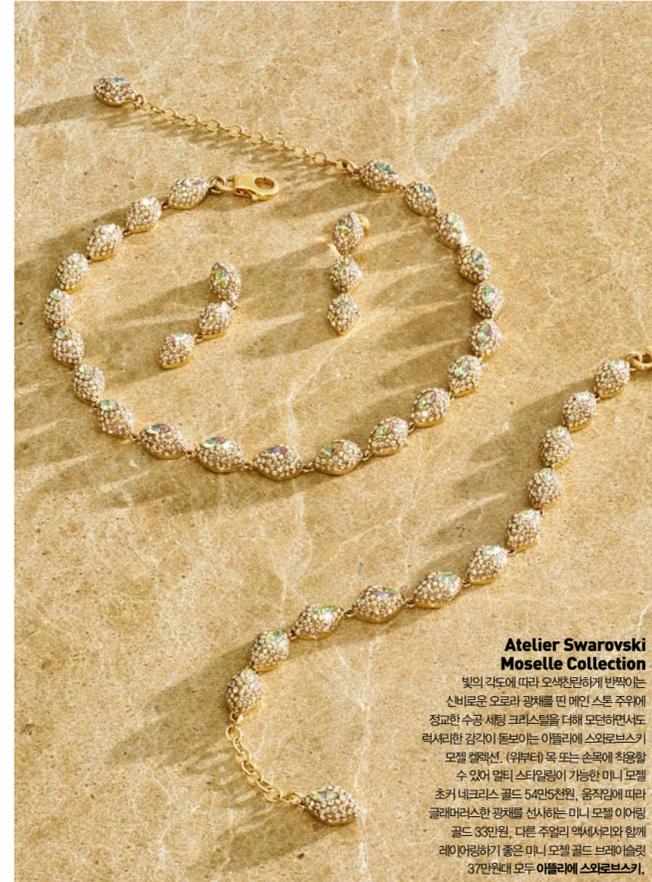
우아한 레드 박스에 담긴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웨딩 링

세기의 러브 스토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링은 그것의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상상과 함께 여성들에게는 로망 그 자체를 의미한다. 까르띠에가 선사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링이 모든 여성을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상징인 셈이다. 까르띠에의 가장 대표적인 웨딩 링으로는 세 가지 품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우아함을 발산하는 '솔리테어 1895 파베 링'이다. 1895년 루이 까르띠에가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한 와이어 세팅 기법을 반영한 웨딩 반지이며, 중앙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밴드에도 촘촘하게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클래식한 매력과 눈부신 광채를 동시에 발한다. 두 번째는 볼록하게 솟은 매혹적인 자태의 메인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고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감싸고 있는 '까르띠에 데스티네 솔리테어 링'이다. 메탈을 감추고 스톤을 돋보이게 하는 마이크로 파베 세팅을 통해 성운에 둘러싸인 별처럼 다이아몬드가 무한히 반짝이도록 완성한 기법이 돋보인다. 마지막은 간결한 디자인 덕에 데일리 링으로도 손색없는 '에탕셀 드 까르띠에 솔리테어 링'이다. 하지만 착용할 수도 있고,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버전을 함께 레어링하면 트랜디함과 사랑스러움, 간결함의 미학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컬러, 등급, 투명도, 컷, 캐럿까지 꼼꼼하고 엄격하게 선별하기에 '보석의 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신뢰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까르띠에. 오래도록 곱꾸어온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싶다면 까르띠에가 그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1566-7277 에디터 권유진

1 1969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리처드 버튼에게 선물을 받은 버튼-테일러 다이아몬드. Archives Cartier © Cartier 2 까르띠에 데스티네 솔리테어 링. 3 솔리테어 1895 파베 링. 4 1956년 그레이스 켈리가 영화 <상류사회>에서도 착용한 10.47캐럿의 에메랄드 컷 약혼반지. © MGM, Coll Sunset Boulevard 5 1969년 버튼-테일러 다이아몬드를 착용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6 까르띠에 데스티네 솔리테어 링. 7 2011년 결혼식 당일 까르띠에 '헤일로' 티아라를 착용한 케이트 미들턴. 캐머런 맥킨지 공작부인. © Dan Kitwood / Getty Images 8 1969년 리처드 버튼이 까르띠에에서 구입한 69.42캐럿의 버튼-테일러 다이아몬드. © Dan Kitwood / Getty Images 9 1956년 그레이스 켈리가 모니코 왕 레니에 3세에게 받은 약혼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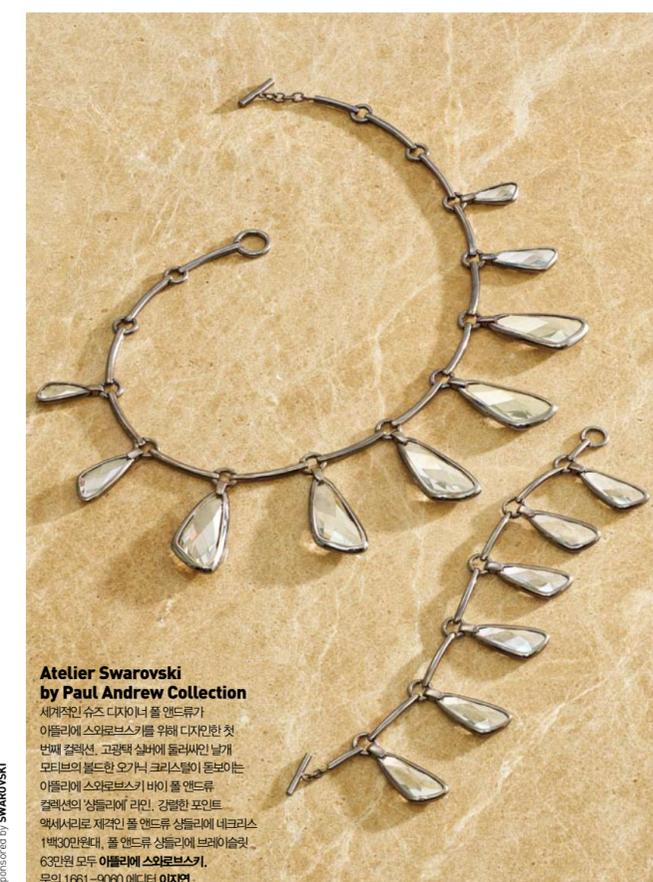


modern Brilliance



Atelier Swarovski Moselle Collection 빛의 각도에 따라 오색찬란하게 반짝이는 신비로운 오로라 광채를 띤 메인 스톤 주위에 정교한 수공 세팅 크리스탈을 더해 모던하면서도 럭셔리한 감각이 돋보이는 이틀리에 스와로브스키 모젤 컬렉션. (위부터) 목 또는 손목에 착용할 수 있어 멀티 스타일링이 가능한 미니 모젤 초커 네크리스 골드 54인치 버전, 움직임에 따라 글래머스한 광채를 선사하는 미니 모젤 이어링 골드 33인치, 다른 주얼리 액세서리와 함께 레오아르탕이 좋은 미니 모젤 골드 브레이슬릿 37인치. 모두 이틀리에 스와로브스키.

단순한 반짝임을 넘어 정교함과 럭셔리,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프리미엄을 말하는 스와로브스키의 '이틀리에 스와로브스키' 라인. 세계적인 디자이너와의 협업은 물론, 브랜드 고유의 세팅 기법과 크리에이티브한 테크닉을 더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이틀리에 스와로브스키 컬렉션과 배우 박신혜의 만남.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telier Swarovski by Paul Andrew Collection 세계적인 수조 디자이너 폴 앤드류가 이틀리에 스와로브스키를 위해 디자인한 첫 번째 컬렉션. 고풍한 실루에 둘러싸인 날개 모티브의 볼드한 오가닉 크리스탈이 돋보이는 이틀리에 스와로브스키 바이 폴 앤드류 컬렉션의 상들리에 라인. 강렬한 포인트 액세서리로 제각각 폴 앤드류 상들리에 네크리스 1백30인치, 폴 앤드류 상들리에 브레이슬릿 63인치. 모두 이틀리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80 에디터 이지연





new destination, Neapolis

“눈을 감고 나폴리를 생각하면, 나는 이런 컬러들이 보입니다.”

—샤넬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메이크업 & 컬러 디자이너 루치아 피카

지난 10월, 청담동 K현대미술관에서 소수에게만 공개한 샤넬의 2018 S/S 나폴리 컬렉션 프리뷰 현장. 나폴리라는 단 한 가지 단서만 가지고 맞닥뜨린 나폴리 컬렉션은 보는 순간 마음 한편이 뜨거워질 정도로 강렬하고 눈부신 나폴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생동감 넘치는 나폴리의 자연과 그곳에 깃든 강렬한 햇살, 그리고 파스텔 톤을 가득 머금은 건물과 바로크 양식의 장식까지, 이런 나폴리의 파스하고 풍요로운 풍경은 루치아 피카가 창조한 샤넬 코스메틱에 강렬하고 우아하게 스며들었다. 샤넬의 아이덴티티와 나폴리의 에너지, 그리고 루치아 피카의 열정과 감각이 만나 탄생시킨 이 매력적인 컬렉션에 대해 루치아 피카와 서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나폴리의 에너지를 담은 샤넬 2018 S/S 나폴리 컬렉션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신성하고 관능적인 도시, 나폴리. 소박하고 거칠지만 낙천적인 에너지로 생동하는 이 도시는 샤넬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메이크업 & 컬러 디자이너 루치아 피카의 고향이자, 지난 시즌 캘리포니아에 이어 샤넬 메이크업 컬렉션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두 번째 여행지다. 이 페이지에 소개한 이미지에서도 느낄 수 있듯 수많은 의미와 은유가 담긴 나폴리의 아름다운 풍경은 2018 S/S 나폴리 컬렉션의 다채로운 컬러와 무드, 텍스처에 영감을 주었다. 짙고 강렬한 검은 모래와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노란 암석, 해 질 녘의 신비로운 빛을 머금은 바다, 역사적인 도시 곳곳의 전통 문양과 장식까지, 루치아 피카가 나폴리에서 느끼고 상상한 이미지와 기억은 다채로운 컬러의 메이크업 아이템으로 재탄생해 피부 위에서 가장 돋보이는 컬러를 발산한다. 대표적으로 샤넬에서 지금까지 출시한 팔레트 중 가장 다양한 컬러를 담은 '레네프 옹브르 팔레트 에디션 N°1'은 나폴리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컬러뿐 아니라 텍스처까지 나폴리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나폴리의 낙천적인 무드를 반영한 밝은 컬러부터 파스한 햇살을 머금은 짙고 차분한 컬러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나폴리의 풍경처럼 표현 방법에 따라 컬러를 은은하게, 또는 강렬하게도 연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팔레트다. 이와 함께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폼페이 프레스코화를 그릴 때 사용했던 템페라 기

● sponsored by CHANEL



1 나폴리의 파스한 빛과 컬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생기 넘치는 코랄 레드 컬러의 푸주 알튀르 발렛 66 번 도미넌과 따뜻한 피치 톤의 푸주 알튀르 발렛 65 라인스토크로티카. 2, 4, 6 이번 2018 S/S 나폴리 컬렉션의 영감이 된 나폴리의 풍경을 루치아 피카의 감각과 시선으로 담아낸 감각적인 비주얼. 3 컬러부터 텍스처까지 나폴리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를 재해석해 선보이는 레네프 옹브르 에디션 N°1 아브레스코. 5 나폴리 하늘에서 포착한 파스텔 핑크 구름부터 프레스코화에 자주 사용되는 컬러에 샤넬만의 DNA를 더해 우아하게 표현한 르 베르니 컬렉션. 7 나폴리 컬렉션 중 가장 특별하고도 새로운 형태의 립 팔레트인 '뿌드르 아 레브르'. 8 강렬한 액처를 느낄 수 있는 2018 S/S 나폴리 컬렉션의 모델 광고 비주얼.

법(달걀, 벌꿀 등을 용매제로 사용한 안료나 이것과 섞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적용한 '뿌드르 아 레브르'다. 루치아 피카의 열정과 애정을 담은 이 특별한 립 팔레트는 투명한 모이스처라이징 밤과 틴티드 프레스트 파우더 피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용 또한 독특하고 재미있다. 먼저 손가락 끝으로 밤을 발라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고,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혹은 손가락 끝으로 파우더를 두드려 바르는 것. 루치아 피카가 '방금 키스한 듯한 입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컬러가 은은하게 번진 매력적인 립을 매우 쉽게 연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나폴리의 노을 진 하늘에서 포착한 파스텔 핑크 구름의 신비로운 컬러와 프레스코화에 자주 사용된 밝고 선명한 옐로 컬러와 민트 컬러를 더한 네일 에나멜은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주 오래된 나폴리의 기원에서 영감을 받은 매우 새롭고, 로맨틱하며 재미있는 컬렉션'이라고 표현한 루치아 피카의 말처럼, 다가올 스프링 시즌에는 나폴리의 컬러를 피부에 바르는 것을 넘어 나폴리의 우아하고 위트 있는 에티튜드를 경쾌하게 펼 것이다. 이처럼 매 시즌 뷰티 제품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콘셉트와 비주얼이 감각적인 컬렉션을 선보이는 샤넬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메이크업 & 컬러 디자이너 루치아 피카, 그녀와 그녀의 감각을 붙여넣은 나폴리 컬렉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옆 페이지의 인터뷰를 확인한 것.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interview with Lucia Pica



특정 도시나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풍경과 컬러에서 주로 영감을 받고 있다. 풍경을 바라보는 날다른 시간에 갑작스럽고, 이를 메이크업 제품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다. 당신의 SNS를 보니 평소에도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지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 같다. 당신은 어떠한 상황의 여행자인가? 저는 간혹 계획 없이 여행을 하곤 해요. 우연히 무엇인가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여행하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요. 호텔을 찾지 못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난감할 때도 있죠. 하지만 무작정 여행을 떠나보면 그 장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행을 철저히 계획하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니까요. 저는 늘 여행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정을 주로 하고 해요. 샤넬과 함께한 이번 'Travel & Journey'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나폴리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가? '나폴리'를 단어로 정의하면 저의 뿌리, 그리고 애정, 소속감이에요. 비록 지금은 제 고향이 나폴리를 떠나지만,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나폴리에 자주 가곤 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촉감과 향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하고 사람스러운 장소라고 느껴요. 그만큼 나폴리는 저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가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죠. 더 많이 웃게 되고요, 나폴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빛이에요. 강렬한 황금빛 그 안에 흠뻑 젖어들면 마치 제가 나폴리의 사랑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릴 때 일요일이 되면 아빠와 오빠랑 함께 나폴리 해변에 갔어요. 그곳에서 탐험 놀이도 하고 휴양을 즐겼죠. 파스텔컬러의 작은 집들을 구경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 해변은 햇볕에 눈부시게 반짝이는데, 그런 반면 화산재로 이루어진 검은 모래가 짙고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짙은 컬러의 바다, 눈부시게 환한 빛, 노란색 암석까지, 나폴리는 그야말로 색깔이 풍부한 도시예요. 저는 이번 컬렉션에서 이런 나폴리가 지닌 강렬한 에너지와 컬러를 메이크업 제품으로 해석하고 싶었어요. 보다 추상적인 접근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나폴리 이미지를 이번 컬렉션에 어떻게 녹여내기를 바랐나? 나폴리 특유의 컬러는 두말할 것 없고 나폴리 특유의 텍스처와 액처를 담고 싶었어요.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텍스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나폴리의 전통 템페라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립 팔레트인 '뿌드르 아 레브르'가 대표적이예요. 이번 컬렉션에서 나폴리의 강렬하면서도 밝은 에너지를 표현하되, 샤넬다운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이 고심했어요. 하지만 깊이 있는 컬러와 텍스처를 구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특히 이번 컬렉션 중 프레스코화에 자주 사용되는 옐로 컬러 네일 에나멜을 만들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어요. 파스텔 계열의 옐로 컬러보다는 깊이감이 있는 동시에 웨어러블한 컬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번 시즌의 컬렉션을 활용하는 당신의 팁을 소개해달라. 저는 더스티 그레이-그린 컬러인 '옹브르 프리미에르 크림 아이셰드 베르데리드'를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레네프 옹브르 아이 팔레트 '아레 레아'에 넣는 것을 좋아해요. 보다 짙고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죠. 옹브르 프리미에르 크림 셰도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 비고도 레네프 옹브르 팔레트에서 새틴이나 세미-메탈릭 컬러 중 하나를 선택해 브러시로 에어링하면 돼요. 특히 팔레트에 담은 두 가지 그린 컬러를 함께 발라보길 추천해요. 보통 하나 이상의 컬러를 믹스하고 싶을 때는 밝은 컬러와 비교적 차분한 톤의 컬러를 매치하면 좋아요. 저는 이번 레아링과 믹스 매치를 위한 아이디어를 위해 이 새로운 아이 팔레트를 세 가지 톤으로 구성했어요.

당신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모델인 예술가에 가깝다. 이번 날다른 관점과 자신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닌, 성장 배경이나 관심사, 노력으로 형성되었을 것 같다.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의 성장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저 역시 이런 날다른 성장이나 관점은 타고나지 않다 후천적인 노력과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초가 되는 토대는 있었죠. 하지만 특정 분야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예술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늘 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제게 편안하고 익숙한 도시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곳, 새로운 언어와 문화가 있는 곳에서의 도전을 많이 했죠. 사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것이 제겐 매년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으므로 저 자신을 발전시키고 관심 분야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제 주변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들과 교류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것도 저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컬렉션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무엇인가? 앞서 설명했지만 저는 여행을 할 때도, 새로운 컬렉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도 철저하게 계획하는 양이요.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고, 영동한 상황에서 떠오르기도 하죠. 에 피스드를 하나 얘기 해보자면, 함께 사진 작업을 한 포토그래퍼 맥스와 트래블 & 저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함께한 저의 식사 자리에서 "색감이 풍부한 도시에 가면엔 줄을 거 같아라고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러면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볼까?"라고 제안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영감지이자 도시인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도 철저하게 계획한 게 아니고 자동차를 렌트하고 간단한 장비만 챙겼죠. 그 당시에는 이번 여행을 통해 사진전을 만들지, 비주얼을 어떻게 만들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도로를 달리는 데, 캘리포니아의 풍경이 처음에는 햇살이 땀타가 어느 순간 희색 빛으로 변해버렸고요.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밝고 푸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화색빛의 차분한 면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하루는 노을이 질 무렵, 자동차 라이트를 켜놓고 풍경을 비추고 있었는데, 라이트 불빛이 반사되어 노을이 진 하늘이 굉장히 밝은 옐로우 컬러로 보이더라고요. 전 이때 "저 컬러의 립스틱을 만들어줬어"라고 외쳤고, 그렇게 해서 '파스트 라이트'라는 컬러의 립스틱이 탄생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여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할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이 되는 부분은? 컬렉션을 만드는 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추상적인 영감을 웨어러블한 메이크업 제품으로 재해석하는 것 같아요.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이라는 것, 그리고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성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컬러와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가장 많이 해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인가? 다음 시즌 컬렉션을 준비 중이기에 자세한 말을 못하겠어요. (웃음) 아마도 아시아가 되지 않을까요?

the time is Now

“Yesterday is Over, Tomorrow is Too Late. The Time is Now(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프리 안티에이징을 위한 캡춰 유쓰를 이보다 더 적절한 문장이 있을까. 다음이 이야기하는 예방 차원의 안티에이징 스토리는 매우 견고하고 정확하다. 꾸준한 연구를 통한 기술적인 발전뿐 아니라 감성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불안한 감정, 조금 더 달라지고 싶은 뷰티에 대한 갈망을 고스란히 담았다. 지난 2017년 10월 도쿄에서 펼쳐진 디올 스킨케어 사이언티픽 서밋에서 만난 프리 안티에이징의 미래, 새로운 컬렉션 디올 캡춰 유쓰를 소개한다.

“치료나 개선은 더 이상 스킨케어의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맞춤 예방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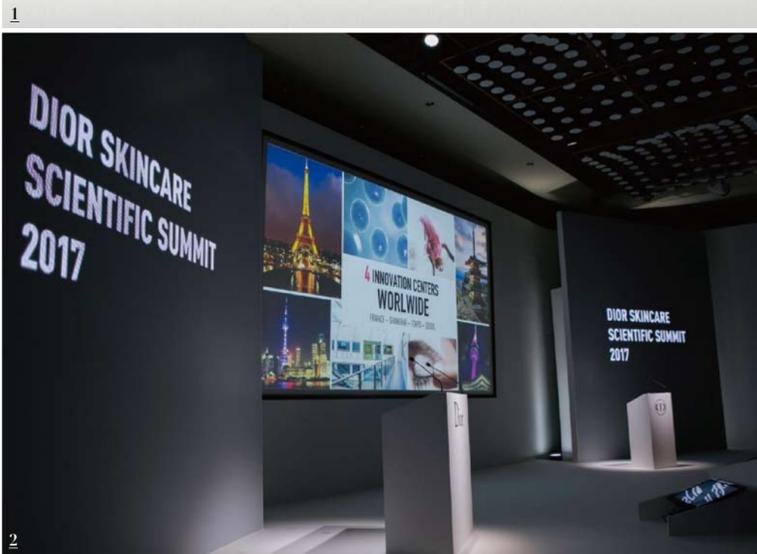
— 디올 코스메틱 회장 클라우드 마르티네즈(Claude Martinez).

2017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새로운 스킨케어와 과학적 성과를 보고하는 디올 서밋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 세계적인 연구진, 노벨상 수상, 예측 의료에 대한 개념 등 과학적 용어였다. 화장품도 과학적 투자가 발전 없이는 진화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다음은 항상 스킨케어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서밋에 참여하며 화장품은 피부를 가꾸는 도구를 넘어 삶의 중요한 루틴이며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소이자 아름다움의 비전을 드러내는 중요 요소란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다음은 이러한 형식의 과학적 발전을 발표하는 뷰티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할 예정인데, 디올 코스메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문가들이 나와 자신의 의견과 최근 트렌드, 그리고 화장품의 발전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서밋에서도 첫 번째 발표자인 디올 코스메틱 회장 클라우드 마르티네즈는 뷰티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련된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음에 있어 아시아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감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뛰어난 완성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곳이지요. 1947년 혁신적인 패션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디올은 현대에 이르러 여성의 행복을 달성하는 것이 스킨케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종과 지역, 라이프스타일에 관계없이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디올 스킨케어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은 과학적 혁신인데, 프랑스의 헬리오스를 베이스로 도쿄와 상하이, 서울에 이노베이션 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계성을 지닙니다. 이 장소들은 모두 관찰자이면서 연구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디올을 더욱 새롭게 합니다”라고 뷰티 허브로서 아시아의 위상을 강조했다.

예측 의료에서 영감을 받아 예측 코스메틱의 개념으로

이번 서밋에서 예측 의료 전문가 미치야키 구보 박사는 디올이 추구하는 예측 코스메틱이 얼마나 진화된 방식인가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주었다. “예측 의학은 정밀 의료라는 분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본엔 이러한 분야에서 권위가 높은 리켄 센터란 유명한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인간 건강의 미래를 연구하는데, 미국에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 관해 새로운 투자를 하기도 했죠. 예측 의료는 질병의 관계와 원인, 유전적 요소까지 모두 반영해 지난 20년간 혁신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단순히 약을 먹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해 예측 의료를 통해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한 맞춤 의료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좋은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예방은 가능하지만 모두가 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정밀 의료가 도입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밀 의료는 암과 동맥과 관련된 유



“정밀 의료로 치료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다음 화장품의 예측 코스메틱 역시 이러한 예측 의학에서 영감을 받았기에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화된 개념의 예측 코스메틱은 실제로 피부에 어떻게 작용할까? 직접적으로 이 화장품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디올 스킨케어의 에두아르 모베-자르비와 과학자 이자벨 페트로폴리스가 발표자로 나서 진철한 설명을 덧붙였다. 에두아르 모베-자르비는 “예측 의학에서 영감을 받은 초기부터 예측을 하고 맞춤형된 형식으로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을 정밀 의료 개념에서 다양하게 고민했고, 그 결과 예측 코스메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잠재된 노화 요소를 처리하는 것이죠.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피부의 항산화 잠재력을 파악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피부 재생력과 산화에 대해 시험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잠재력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노화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줄어 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산화되기 이전에 피부 잠재력을 높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죠.” 직접 연구를 맡은 이자벨 페트로폴리스는 “이를 통해 피부에 글리옥살라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피부의 천연 항산화 기제인 글리옥살라제를 활성화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 플랫폼 diorscience.com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저명한 과학 연구 잡지인 <네이처>에 실릴 정도로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100% Made in Dior, 디올 캡춰 유쓰

이러한 예방 의학에서 영감을 받은 디올 캡춰 유쓰 라인의 신제품은 이 연구의 내용처럼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피부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핵심을 둔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젊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레시피를 완성했는데, 이는 바로 안티스페이징(anticipaging, 예측 에이징)이라는 개념이다. 노화의 징후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해 이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개인별로 다른 피부 고민에 맞추어 피부 젊음을 유지하고 주름, 처짐 같은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이를 관리하는 것. 사용법도 매우 독특인데, 한 가지 크림에 다섯 가지 세럼을 취향, 혹은 필요, 나이, 안티에이징 고민에 따라 사용하는 프리 안티에이징을 표방한다. 한 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이 신제품은 내용까지 충실하다. 전 세계 코스메



1 노화의 징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캡춰 유쓰, 피부 고민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다섯 가지 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30ml, 14만원. 앞에 놓인 제품은 캡춰 유쓰 세럼과 함께 사용하는 캡춰 유쓰 에이징-달레이 어드밴스드 크림, 50ml, 14만원. 2 도쿄에서 개최된 디올 스킨케어 사이언티픽 서밋 2017. 3 캡춰 유쓰 리프트 스크ulpt 에이징-달레이 리프팅 세럼의 핵심 성분인 녹차. 4 크림과 세럼이 사용법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5 캡춰 유쓰의 전 라인업과 사용법, 그리고 캡춰 유쓰의 새로운 모델이 된 카탈 디자이너의 모습을 공개한 행사진. 7 사이언티픽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에두아르 모베-자르비와 과학자 이자벨 페트로폴리스. 8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디올 뷰티의 과학적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피부 컨디션을 측정하고 있는 모델. 9 캡춰 유쓰 에이징-달레이 어드밴스드 크림은 디올의 노화유기 담긴 특별한 텍스처를 갖추고 있다.



틱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예방 의학에서 모티브를 얻은 만큼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번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개별 인타부를 통해 만난 텍스처 개발 전문가 브리지타 노야는 디올 캡춰 유쓰의 성분과 대해 자연 유래 성분 함량을 9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한다. 덧붙여 “엄선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좋은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디올에서 중요한 이유는 성분의 순수성과 혁신성이 피부에 더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은 안전성은 물론 뛰어난 퀄리티를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100% 자연 성분을 무조건 화장품에 도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요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캡춰 유쓰의 자연 유래 성분이 90%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라고 말하며 연구 개발에서 원료 구성은 물론 완성품까지 만들어내는 ‘100% Made in Dior’ 화장품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디올 스킨케어, 미래를 이야기하다

그동안 디올 연구진은 피부 메커니즘을 관찰하고 복잡한 구조를 연구하며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다. 내일을 위한 코스메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에 지금의 디올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선구자적 태도로 아시아에 3개의 디올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했는데, 일본과 중국에 이어 한국에도 곧 설립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기대를 자아낸다. 디올의 이러한 과학적 노력은 아시아의 기후와 환경을 이해하고, 이것이 아시아인의 피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지역 여성과는 다른 아시아 여성만의 피부 특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제품의 R&D를 내부에서 진행해 100% Made in Dior을 구현했다는 자부심으로 과학계에서 존경받는 과학자들이 디올의 스킨케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다음은 이처럼 과학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왔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긴 과정을 통해 완성한 캡춰 유쓰를 통해 치료나 개선이 아닌 맞춤 예방으로의 스킨케어를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과학적 성취와 안전한 성분을 갖춘 코스메틱을 꾸준히 선보일 디올의 미래를 기대하며 캡춰 유쓰를 경험해보자. 에디터 배미진/도쿄 현지 취재

editor's Pick

새해 '피부 미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스타일 조선티일보>가 추천하는 뷰티 리스트를 참고하자.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폴앤조 페이스 & 아이 컬러 CS 쿠아온 일루스트가 그 라인 분투에서 개편된 자코한 레코드판 카드가 나오는데, 잠깐 스티커를 떼면 갈라 파우더를 안개 안착해준 듯한 재질이 담겨 있다. 손으로 쓱쓱 눈과 볼 주위에 바를 수 있고, 3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세 가지 컬러가 한 세트며, 잃은 페이스 타일만으로 휴게하기 편리하다. 3천원. 문의 02-772-3966. *by 에디터 이지민*

클라리스 인스턴트 라이트 립 컴포트 오일 한번 쓰면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립 오일. 세 가지 식물성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데도 끈적이지 않고 바로 스며들며 지속력이 뛰어나다. 까다로운 립 제품 마니아들에게도 극찬받은 제품. 뛰어난 컬러의 오일로 텍스처를 완성했기에 더욱 뛰어난 광택감을 느낄 수 있다. 7ml 2천8천원. 문의 080-542-9062. *by 에디터 배미진*

골드레노 보에 루주 아 레브로 13호 피치 스킨 마스크는 불기운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피치 컬러의 립스틱, 청순하고 맑은 피치 컬러의 안색을 화사하게 살려주고, 특히 피부가 탄력있어지면 탄을 더할 나위 없이 예쁘게 살려줄 립 컬러다. 입술이 갈라진 사용해도 될 만큼 광택이 부드럽고 촉촉하기 때문에 갈라지거나 입술이 갈라진 영과도 없다. 4g 6천5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권유진*

조르지오 아르마니 투 고 쿠션 꾸뛰르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와 동시에 품질 단락을 끌어올린 일명 '레드 쿠션'이 매력적인 쿠뛰르 드레스의 패턴을 입고 출시된다. 테스트본 에디션들이 모두 인성 쿠션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볍게 톡톡 두들기는 것만으로도 놀랍도록 피부가 쫄쫄하고 탱글탱글해지며, 고급스러운 광택을 더해 만족스럽다. 15g 8천9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권유진*

시슬리 로즈 샌티드 캔들 시슬리 캔들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된 로즈 샌티드 캔들. 지난해 선보인 시슬리 아자아 오드 퍼퓸의 장미 향을 담았다. 이 특별한 장미는 우아한 플로럴 프루티 향으로, 플라워와 시트러스 노트가 장미 향의 플로럴 미를 노드노 아자아. 방 안에 은은하게 캔들을 피우면, 럭셔리한 장미의 향기로 상쾌한 인장된다. 165g 8천5천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이지민*

에스티 로더 라미아티비티집 수프림+아이 젤리 쉽게 피로해지고 다크서클이 드리우는 눈가를 위한 스마트한 아이 제품. 콜링 기능의 마시지 애플리케이션을 내장한 제품으로, 눈가가 무겁고 피로해졌다고 느낄 때마다 수시로 마시지해주면 눈가에 금세 생기가 감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젤리라는 제품명에서 엿볼 수 있듯 쫄쫄하고 촉촉한 질감으로, 피부를 탄력 있고 팽팽하게 조여주는 느낌이 특징이다. 15ml 9천2천원. 문의 02-3440-2772. *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CC크림 수퍼 액티브 컴플리트 코렉션 SPF 50 자외선 차단 효과와 가벼워, 영양 공급 기능까지 모두 갖춘 갠츨 CC크림. 샤넬이 처음 출시한 이후, 현재 제품이 많이 등장했지만, 역시 오리지널 제품이 그 1가는 더욱 좋다. 전 세계적으로 3백만 개 이상 판매되었기에 믿을 만하다. 1월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제품에는 무문가 플럼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인 피부 개선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30ml 7만6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배미진*

루이 비통 오드 파퓸 미니어처 세트 루이 비통이 기존 향수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총 일곱 가지 향수를 한데 모아 미니어처 세트를 구성했다. 장미 향기를 가득 머금은 로즈 데 방, 진한 플라워의 튜플링스, 천년 가족의 독특한 향기가 달콤한 살구 등과 어우러진 '링 라 포' 등 총 일곱 가지 향으로, 향수 컬렉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구성이다. 각 10ml 4천3천원. 문의 02-3441-6465. *by 에디터 이지민*

라프레리 화이트 캐비어 일루미네이팅 펄 인퓨전 피부에 건강한 광채와 리프팅 효과를 한번에 선사해주는 세럼. 골든 캐비어 추출물을 함유한 명품한 진주 빛깔의 스킨-브라이트닝 리프트 젤이 여성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피부 톤 관련 문제인 붉은 기와 칙칙함, 유해 물질로 인한 화상 피부 톤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30ml 6천5천원.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이지민*

겔랑 오가드 일루미네이팅 아이 엠 립 컴퍼트 크림 다양한 표정으로 잔주름이 생기는 얇고 예리한 눈가와 입가를 위한 집중 안티에이징 크림. 겔랑 오가드 라인의 영성을 고스란히 담아, 미치 피부에 보습 막을 씌운 듯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스며드는 풍부한 텍스처가 단연 돋보인다. 허브 성분인 크로노-리스토스 테크놀로지를 더해 개개인의 피부 리듬에 따라 광채, 피부결, 탄력 등을 개선하는 스킨 한 효과도 갖는다. 15ml 2천7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권유진*

데코르테 피토포 클리어 파우더 워시 핑스 해와야행을 가거나 간편하지만 꼼꼼하게 클렌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파우더 타입 클렌저. 허브 성분을 함유해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출출한 기분이 피부를 트리트먼트해주는 느낌. 하이엔드 브랜드인 데코르테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40g 3천6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배미진*

랑콤 레제리시 매트-리프트 울트라 풀 스펙트럼 안티에이징 크림 나이기가 들수록 짙어지는 잡티와 축 처진 피부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인티 디크 스킨 & 안티에이징 크림. 피부에 비르면 촉촉하면서 마무리는 오일 막을 씌운 듯 포근한 하루 종일 건조함 없이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50ml 1천7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권유진*

프라다 조디악 오벌 스킨 컬렉션 바누 본연의 기능은 아라 방향과 인테리히 효과까지 뛰어난 선물 아이템으로 사랑받아온 오벌 스킨이 2018년을 맞아 12종 별자리를 대표하는 12가지 향을 담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수천 밀리리터 코멘트한 별점도 담겨 있다. 250g 2천2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배미진*



SHOWROOM

BEAUTY

데코르테 AQ 퍼펙트 리메이 키트 데코르테는 새해를 맞아 완벽한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해줄 'AQ 퍼펙트 리메이 키트'를 한정으로 선보인다. 에일션, 로션 등 건조한 겨울철 푸석한 피부에 생기와 윤기를 불어넣어줄 AQ 라인인 베스트셀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568-3111

샤넬 CC크림 샤넬은 생기 넘치는 피부 표현을 도와줄 'CC크림'을 출시한다. 자연에서 얻은 강력한 슈퍼 푸드, 무문가 플럼 추출물을 함유해 뛰어난 스킨 케어와 지속력을 자랑한다. 문의 080-332-2700

어디션 어디션 나이트 이벤트 어디션은 한국 론칭 1주년을 기념해 '어디션 나이트' 행사를 진행

했다. 한정을 방문한 고객을 위해 메이크업 서비스와 '어디션 스튜디오', 터치 & 트라이 존 부스를 운영해 어디션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문의 080-568-3111

프라다 리팜 앤 리움 로 프라다는 신뜻하고 프레시한 느낌을 다한 향수 '리팜 앤 리움 로'를 출시한다. 프라다 컬렉션 쇼에서 영감을 받아 라이트 블루와 파스텔 핑크 톤으로 트렌디한 감성을 표현했으며 리팜 로는 프레시한 플로럴 향을, 리움 로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취를 선사한다. 문의 02-3443-1805

조르지오 아르마니 꾸뛰르 리미티드 에디션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프레미 패션쇼의 독특한 실버 프린트에서 영감을 받은 '꾸뛰르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했다. 기존 아르마니 투 고 쿠션과 동일한 한 포뮬러로 피부에 바르는 즉시 완벽하게 밀착되어 하루 종일 완벽하고 매끈한 뽀빠 피부를 연출해주며, 2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80-022-3332



까르띠에 브로드리 드 까르띠에 웨딩 밴드 까르띠에에는 브랜드 고유의 스타일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선보인다. 다이아몬드를 따라 일찍으로 흐르는 우아한 곡선의 배열이 큰 특징이며,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2가지 버전으로 출시한다. 문의 1566-7277

론진 론진 헤리티지 1945 론진은 직경 40mm의 견고한 스틸 케이스와 브라시드 처리된 구렛빛 다이얼, 누백 베이지 레더 스트랩이 어우러진 론진 헤리티지 1945를 출시했다. 기존 수동 와인딩 칼리버에서 오토매틱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로 변경했으며, 42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문의 02-6905-3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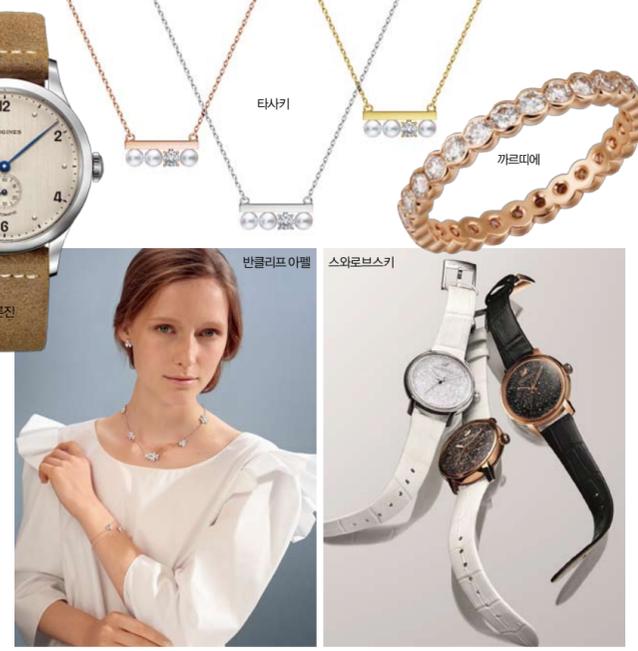
오메가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 팡팡 2018 리미티드 에디션 오메가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념해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 팡팡 2018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했다. 태극기를 상징하는 선명한 블루와 레드 컬러를 가미해 심미적으로 뛰어난 타임피스일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정밀도

와 성능을 자랑하는 마스터 크로노미터를 적용했다. 문의 02-511-5797

반클리프 아펠 다이아몬드 브리즈 빈클 리프 아펠은 눈 덮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하는 '다이아몬드 브리즈' 컬렉션을 공개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작품으로 구성했으며, 그중 로터스 컬렉션과 프루블 컬렉션의 빈클리는 플로럴 모티프 작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문의 02-6905-3440

스위로브스키 크리스탈린 아이스 워치 컬렉션 스위로브스키는 유명 워치 디자이너 에릭 지루와 협업해 완성한 '크리스탈린 아이스' 워치 컬렉션을 출시했다. 천년 레더 스트랩과 2천 개의 크리스탈을 세팅한 다이얼이 스위로브스키만의 고급스러운 빛을 연출한다. 패셔너블하면서도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캐주얼 룩에 잘 어울린다. 문의 02-3438-6108

타사키 썬리 밸런스 다이아몬드 솔로 네크리스 타사키는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와 아로아 진주의 완벽한 조화를 담은 '썬리 밸런스' 다이아몬드 솔로 네크리스를 선보였다. 시그니처 라인 밸런스 시리즈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영롱하고 우아한 반짝임을 담은 18K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SAKURAGOLD™ 등 3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3461-5558



마이클코어스
브리오니
로로피아나

0914 폴라 베어 백 0914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담은 '폴라 베어 백'을 출시했다. 가벼우면서도 포근한 퍼 소재로 제작했으며 탈착 가능한 퍼 트림 품종이 포함되어 있다. 일파카와 라군, 2가지 소재와 4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다. 문의 02-2066-0914

로로피아나 안도와 피우모 로로피아나는 기능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패딩 재킷 '안도와 피우모'를 선보인다. 통가성이 뛰어난 질감다운 울 소재를 사용했으며, 탈착 가능한 초경량 특수 솜 패딩을 내장해 체온 유지에 탁월하다. 캐주얼하면서도 포멀한 느낌을 주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문의 02-549-7734

마이클코어스 브리스틀 백 마이클코어스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가죽 소재의 시벨 백 '브리스틀 백'을 출시했다. 낙첨한 수납공간과 달걀로 실용성을 더했으며 스타일과 금속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다양

한 컬러와 27가지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6-6090

보테가 베네타 케어니인 캡슐 컬렉션 보테가 베네타는 2018 황금 개미 해를 맞아 케어니인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다. 밝고 쾌활한 컬러와 소재, 강자이 프린트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지갑, 파우치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했다.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인트레치아토 워크맨을 더해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은 분위기를 완성했다. 문의 02-3438-7601

브리오니 포털 슈즈 컬렉션 브리오니는 신선을 맞아 선보이고 품격 있는 남성을 위한 선물 아이템 '포털 슈즈' 컬렉션을 제안한다. 블랙과 브라운 2가지 컬러와 부드러운 숄더가죽을 사용해 군더더기 없는 멋스러운 라인이 가장 큰 장점으로, 품위 있고 우아한 남성을 위한 선물로 제격이다. 문의 02-6905-3760

FASHION

JEWELRY & WATCH